구의3동 마을자치이야기

주민자치회
구청장
구의장
동장
기관








구의3동 마을자치이야기

목차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선길 회장 6
더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구의3동 만들고 싶어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연희 부회장 16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동주민센터와 협의와 협력 중요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유금문 간사 24
컴퓨터와 대화하는 묘미

김선갑 광진구청장 34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기본,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42
구의회 틈새를 채워주는 주민자치회

구의3동 지준호 동장 50
30여 년 광진구 공직생활이 빛을 발할 때

구의3동 주민자치회 정선영 문화체육 분과장 60
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광진구의 삶

구의3동 주민자치회 이지훈 교육홍보분과 분과장 68
구의3동이 제2의 고향

구의3동 나희숙 주민자치회 생활안전환경 분과장 78
구의3동은 환경, 교통, 운동 3박자 갖춘 마을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윤영희 감사 84
마을에서 시작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2막

구의3동 주민자치회 한길수 위원 94
일송문화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의3동 주민자치회 장성은 위원 102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예술

구의3동 주민자치회 양민우 위원 108
평생을 광진구 지키며 살아와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승돈 분과위원 116
파크골프 없인 못 살아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일식 위원 124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란?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윤순옥 위원 132
따뜻한 구의3동을 떠나지 못해

구의3동 주민자치회 오세순 위원 138
평생을 봉사하는 삶 살아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유현미 위원 146
배드민턴은 내 삶의 동반자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재형 위원 154
천둥벌거숭이도 품격으로 맞이해주는 구의3동 주민들

광진우체국 김덕영 집배원 166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광진학교 장택수 팀장 172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


구의
무더위쉼터에서
편히 쉬어가세요
구의3동 주민센터


3동 주민센터
17

더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구의3동 만들고 싶어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선길 회장

일시 | 2020. 07.28.(화) 13: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김선길 주민자치회장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만들고 싶다"

안개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날 구의3동 주민자치센터에 먼저 도착한 김선길 회장님이 넉넉한 미소로 맞아 주신다. IMF 때 구의3동으로 이사 온 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신다. 그 때 시작한 화원과 조경 사업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산천이 두어 번 바뀌는 시간만큼 구의3동의 발전과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만큼의 세월이 지나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구의3동이 좋다는 것이겠다. 차가운 음료수를 앞에 두고 구의3동 지역과 주민, 자치회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살기 좋은 구의3동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며 항상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살기 좋은 구의3동을 만들려는 김선길 입니다. 구의3동이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리적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 강남과 강북의 교통 요지로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울터미널이 있어서 지방도 쉽게 갈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각종 동호회를 비롯한 소모임이 활동도 활발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 개진이나 결정이 빠르고, 행정적인 처리도 신속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정과 냄새가 듬뿍 나는 곳이라서 참 좋습니다.

사랑꾼 김선길 회장



한 곳에서 이십여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선길 회장님은 꽃과 나무에 관한 사업을 해서 인지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 편찮은 사모님을 보살피는 일, 아내와 산책하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꾼이다.

사담일 수 있겠지만 좋은 조건부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아내가 아픈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아내가 아픈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지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더 이상 그런 위치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한강에서 산책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한 달에 몇 번씩 가기도 하지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에 전혀 가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산모임' 등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경로당. 노인정, 어린이집 등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간미도 느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임에 있다 보면 우리 자신도 한 번씩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모임과 봉사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니 좋은 것 같아요.

직능단체 활동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김선길 회장님은 구의3동에 속한 직능 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현 주민자치회) 등에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 구의3동이 광진구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회장에 출마했고 현재 회장으로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멋있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셨다.

오랜 기간 동안 터전을 잡고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구의3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직능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구의3동에 관심이 많았고 더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과도 긴밀한 협조나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의3동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차이점과 보완해야 할 점과 주민자치회를 먼저 시행한 선배의 입장에서 도움의 말도 전했다.

주민자치회는 구의3동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로서 자발적으로 지역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구의3동 모든 일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찌보면 관이 주도하고 주민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모임도 관의 지원 하에 비슷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동에 필요한 일을 찾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일까지 직접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격이지요. 물론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더 배워서 진정한 자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 초기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완전한 자치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잘 될려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위원들이 자치회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과의 총무를 하려면 컴퓨터도 잘 해야 되고 자치회만의 내규도 잘 정해야 해서요. 또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사람도 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 없이 출발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위원들이 꼭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청년 위원들을 갑자기 모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요즈음은 워낙 바쁘기도 하고 봉사나 이런 위원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관심없는 활동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3동 자치회 분과는 '자치운영분과, 건강복지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홍보분과, 생활안전환경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범 자치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분과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선길 회장님은 모두가 노력하였음에도 특히 공을 지원관님과 간사님께 돌린다. 또한 위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모두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분과원들의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도 많고요. 마을에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분과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지원관님과 간사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분과원으로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의 '소통'은 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평소 '소통'을 잘 하는 회장님의 방법을 전해 들었다. 회장님은 특히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을 한다고 하니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삶의 철학이 절절히 느껴진다.

저는 위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커피도 자주 마시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전화도 하고 그래요. 가능하면 분과 위원들 입장에서 대화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모임이 잘 되도록 쓴 소리를 하시는 위원님이 있지요. 그런 위원들과 식사를 제안하는 전화도 먼저 합니다. 전화를 하여 현재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자치회를 이끄는 방향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하면 그들도 많이 협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할 일들

회장님은 끝으로 구의3동에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주민, 중소 상인을 위한 활동을 찾고 있고, 구의3동 포장마차 거리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리로 알리고자 하는 바람이 강했다.

외국에서 온 분들이나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 자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 단독주택, 아파트에서 홀로 있다가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자식은 있지만 무관심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의 찾아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알려 주고자 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치회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인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21년에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조직하는 것이 자치회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전 위원장님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하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동에 있는 포장마차의 경우도 여러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주민 불편 사항을 구청장님께 전달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회 활동으로 구의3동 포장마차 거리를 그냥 일반적인 포장마차가 아닌 전국에서 유명한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포장마차를 명물 포장마차로 만들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의3동의 자랑거리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회장님의 주민자치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업 진행부터 실행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으고 그 뜻을 실천하면 더욱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구의3동에 애정이 넘치는 김선길 회장님께서 이끄는 주민자치회는 타 동의 모범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자치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동주민센터와 협의와 협력 중요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연희 부회장

일시 | 2020.07.28.(화) 10:00
장소 | 구의동242-59 (개인사무실)

김연희 부회장

"주민자치회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과 마음으로 접근해야"

평일 아침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끝나갈 무렵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연희 부회장님의 인터뷰를 위해 구의역 주변의 말쑥하게 정돈된 부회장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과거와 달리 구의역 주변이 한산하게 느껴지는 것은 동부법원과 동부검찰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 영향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부회장님 자기소개와 구의3동의 좋은 추억들



저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화장품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현재의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건국대에서 배웠어요. 그때 당시 강의 시작 전 각자 본인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 30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구의3동에서 27~28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기름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 늦은 밤에도 기름 사러 다녔던 기억과, 겨울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모두가 저에게는 구의동에서의 좋은 추억들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참여하게 된 동기와 보람된 일

현재 광진구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2020년부터 광진구 내에 5개동을 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다.

제가 과거 직장 다니면서 법무 관련 일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찾다가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가입하니까 동네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봉사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40~50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주민자치회 전체회의를 하기 위해 전날 주민 위생 안전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보람으로 남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제가 직접 소독을 실시했는데, 분무기 소독 4회를 실시했고 유리창을 활짝 열어 환기시킴으로써 모두가 믿고 안전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모든 것이 봉사이고 주민자치회라는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부회장님은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격월지로 발행하게 될 '구의3동 마을소식지'를 발간하는 교육홍보 분과에 관심이 많았다. '구의3동 마을소식지'는 아직 발간은 하지 않았고 의제 선정만 한 상태라고 한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주민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늘 거리두기, 마스크하기, 창문열기, 소독하기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봉사활동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제를 내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경륜 있고 연세 드신 분도 필요하지만 많은 분야의 젊고 유능한 분들이 분과에 들어 오셔서 활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구의3동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마을소식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부회장님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주민자치회의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조례를 숙지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와 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신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회의 때마다 동주민센터 주무관과 팀장이 참여하여 협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자치회 임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숙지하고 동 주민센터와 대화를 자주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치회 사무국 회의 때마다 동주민센터 주무관과 팀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도록 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보다 특히 임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바람은 봉사활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서 바램을 들려달라는 요청에 바람은 오직 봉사활동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려는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봉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게 도배 장판 해주기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봉사팀이 광진구에는 있지만 구의3동 차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려는 이유는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한 과정이 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자녀가 바르게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연세가 92세인데 아직도 부지런하시고 활동적이셔서 봉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든 것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좋아하나 봅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부회장님은 모든 활동을 봉사와 연계하여 말씀하신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면 봉사라는 개념과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신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인터뷰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부회장님의 사모님께서도 사무실에 나오셨다.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며 자주 방문해서 놀다 가시라고 하신다. 부회장님 내외분이 모두 겸손하시고 친절하시다. 부회장님은 인터뷰에서 '봉사는 겸손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남는다.

컴퓨터와 대화하는 묘미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유금문 간사

일시 | 2020. 07.28.(화) 15: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유금문 간사

"주민자치회 간사 정기적 교육 필요"

장맛비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오후 구의3동 주민센터 4층에서 주민자치회 유금문 간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기운 내라며 내놓은 음료를 앞에 두고 인터뷰에 시종일관 환한 웃음으로 응해주셨다.

주민자치회 간사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유금문 간사님은 16년간 애착을 갖고 마을을 위해 봉사해 왔던 통장을 그만 두었다는 섭섭함보다는 구의3동 주민자치회라는 더 넓은 곳에서 간사의 업무를 맡은 것이 더 행복해 보였다.

저는 구의3동에서 16년간 지역 일을 하며 살았고, 이곳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지역에서 통장을 시작으로 통친회 총무를 거쳐서 회장을 4년간 역임하고 어제(2020.7.27.) 퇴임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의3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간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처음에 간사는 글자 그대로 간사(奸詐)한 줄 알았어요(모두 웃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간사는 컴퓨터를 다루고, 회장을 보필하며 위원들과 소통하고, 동자치지원관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일 등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치회 일을 하다보니까 묘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65세예요.

5개동 간사 중에서 60대는 저 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동자치지원관이 보조금 관련 사업계획서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옛날에는 회계 관련 직종에 종사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표라고 하여 수입, 지출, 잔액, 적요 등을 수기로 했고 도장을 사용해서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기가 전혀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게 어려웠지만 동자치지원관이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묘미에 빠졌을 정도입니다. 65세에 첨단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흐뭇하고 내일은 무엇을 배울지 기대가 됩니다.

간사님이 평소 좋아하는 일



누구나 자기가 좋아서 매일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일이 특이하다면 본인 기억에도 남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의 기반이 된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서를 쓰는 것이 간사님께서 매일 좋아서 하는 특이한 취미였다.

저는 성서를 쓰고 있어요. 필사(筆寫)하는 것이지요. 한 번 다 필사하고 두 번째 필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5년 걸렸는데 지금은 속도가 빨라졌어요. 매일 쓰는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오늘 못한 것은 내일 보충하여 더 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성서를 썼지만 다 쓰고 나니 성서를 쓰는 것은 제 마음의 수양이었더라고요. 결국 나를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과 타인을 위한 것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년 2월이면 다 쓸 것 같습니다. 성서를 쓰는 일은 저의 큰 행복이에요.

주민자치회 가입 동기와 보람을 느끼거나 힘들었던 기억

간사님께서 원활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간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나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각 동의 간사들님 상호간에 주민자회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하고 계셨다.

저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치회 활동 전에는 복지관의 주방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도 해보았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자치회는 통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듣고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를 맡게 되었고요.

평소 부지런하시고 늘 봉사활동이 몸에 배여 있는 분이라서 현재 주민자치회 간사를 하면서 보람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여쭈어 보았다.

주민자치회 간사를 하면서 정신없이 6개월이 지났어요. 간사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렵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제가 (간사라는) 직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간사는 월 100시간 활동하면 소정의 수당이 나옵니다. 주민들과 차 마시며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보람된 것은 업무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간사 역할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미 1, 2분기 정산서는 완료했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화연락 등으로 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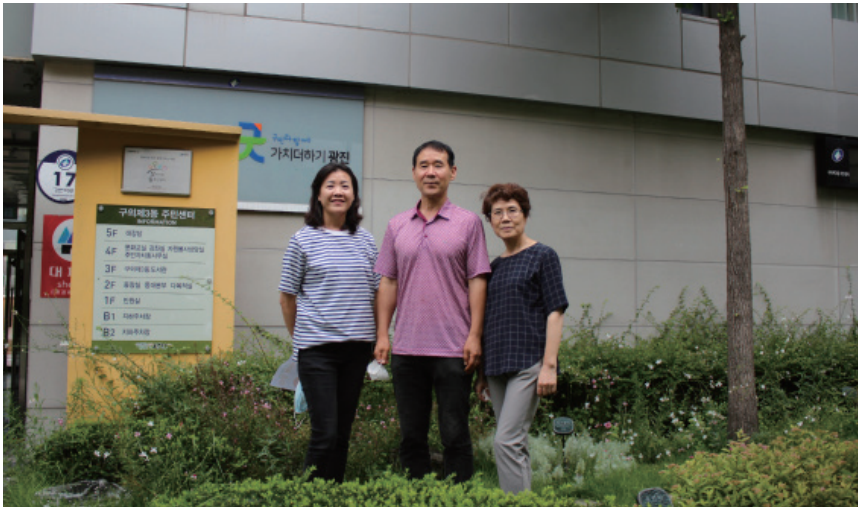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 바라는 것



광진구 주민자치회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이라 일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공유하고 동자치지원관을 통해서 업무를 교류합니다. 광진구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5개 동의 간사끼리 교류가 없는 것이 아쉽고 불편해요. 마을자치센터가 분기별로 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기획하고 고충도 들어 주면 좋겠어요. 간사를 위한 모임도 없고 교육을 해주는 기관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구의3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동민들에게 하고 싶은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니 적응이 잘 안됩니다. 예전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회의 참석만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봉사까지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두 발자국 먼저 움직이면 구의3동이 좋아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주민자치회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구의3동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의욕적인 주민분들은 각 분과로 들어오셔서 자치위원들과 어울려 활동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구의3동 주민자치회 간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저런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간사 업무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오늘 인터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례를 보는 듯하였다. 열정이 넘치는 간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근무시간이 끝날 시간이다. 우리도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일어서기로 하였다.

구의3동 주민센터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힘내자 구삼!
온라인 장기자랑 한마당
2020. 10. 5(월)~
10. 30.(금)
2020.
11. 5.(목)
2020. 11. 20.(금) 14:00
구의3동주민자치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
02)6949-6983


동주민센터

가을 구의3동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기본, 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선갑 광진구청장

일시 | 2020. 11.26.(목) 17:30
장소 | 광진구청장실

김선갑 구청장

"구의3동 주민으로 청년 광진의 가치를 바꾸는 중"

광진구 모든 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바쁘신 김선갑 구청장님께서 구의3동 주민으로 광진구 마을자치 이야기 인터뷰에 잠시 짬을 내주셨다.

50+ 장년 구의3동 주민 김선갑 구청장

27여년동안 구의3동에 주민으로 사신 김선갑 구청장님은 구의3동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하였다. 또 50+ 정책에 관심이 많아 시의원으로 있을 때 50+ 동부캠퍼스도 유치하였고 구청장님 또한 50+ 세대여서 50+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계시다며 인터뷰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였다.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었다.



청년 광진의 출발을 함께 한 50+ 장년 구의3동 주민 김선갑 입니다. 구의3동에서 어떤 행사나 간담회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좀 더 가요. 구의3동에서만 27여 년 동안 살았거든요. 95년도 구의원 출마할 때 이사를 왔고 우리 구의3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생활 정치를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가급적이면 떠나지 않겠다. 그때 마음으로 아직까지 구의3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록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활 정치를 오래 쭉 해오면서 가장 애착을 갖는 정책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50+ 정책하고 사회적 경제입니다. 제가 50+ 세대이기도 하고 50+ 세대들의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요즘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우리의 추억과 마을 이야기를 담는 것은 뜻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먼저 시작한 김선갑 구청장

쉬는 날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즐겨 하는 일이나 취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라고 하신다. 시의원 시절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하신다. 고구려의 정기가 담뿍 서린 아차산을 오를 때도 구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한다.

생활 정치를 하면서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집에 일찍이 들어가서 식사하고 아내에게 '동네 한 바퀴' 돌자고 합니다. 동네를 슬슬 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시의원할 때는 그냥 돌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생맥주도 한 잔하고 그랬는데 지금 동네를 돌다보면 빗물받이가 이게 막힌 데가 없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빗물받이'의 덮개는 계속 교체 중인데 비가 안 올 때는 덮여 있어 악취나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비가 오면 덮개가 열려 물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워낙 숫자가 많아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진의 자연을 즐기고자 아차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아차산에 운동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날은 별로 없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오릅니다. 홍련봉 유적지 발굴 작업과 유적 전시장 설립 계획, 만남의 광장을 확장하는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광장동 381번지 일대 사유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아차산 숲속 도서관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저런 예정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르곤 하지요.

주민이 꿈꾸는 가치, 같이 만드는 광진

광진구청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특히 구의3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들었다. 다른 구에 비해 저평가된 도시 계획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역점을 두고 있는 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구의3동과 관련된 사업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현안이라고 하였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광진의 변화가 더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역 가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지만은 외형적인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진단한 보고서가 20년 초에 나와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대규모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큰 공원에 고도제한을 적용 받는 것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데가 없어요. 이거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종이를 내놓기 무섭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종이를 내놔도 종이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폐지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칠십원 이하로 떨어지는 폭 만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만일 kg당 삼십 원이면 사십 원을 지원하고 일인당 하루 150kg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광진구청장님으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에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였다. 다른 구에 비해 확진자 지표가 낮은 이유는 광진 구민들이 협조와 구청 직원들의 노고로 공을 돌렸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광진 구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구청장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하신다.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연일 대책 회의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확진자 지표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는 구민들의 협조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 일환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전 구민에게 1인당 비말마스크 3장, 세대 당 5장씩 보냈는데, 이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개 아니지만 205만장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임산부, 마을버스 운전자, 직원, 택시 운전자들, 관내에 있는 식당, 당구장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분야별로 지급했습니다.

광진구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광진구청장으로 평가받고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과 마을의 이음돌 '주민자치회'

구의3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치회 위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구의3동을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셨다.

올해 구의3동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였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이것이 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치회 위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 역량이 더욱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민자치회에서 기울이시는 노력이 구의3동과 광진구 주민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라며 광진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의3동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의3동 주민으로서 구청장님은 소탈하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민선 7기의 구청장이 다음번, 그 다음번에도 이어져 광진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인터뷰였다. 바쁜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구의회 틈새를 채워주는 주민자치회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일시 | 2020. 11. 12.(목) 11:00
장소 | 광진구의회 의장 집무실

박삼례 의장

"주민 숙원사업 해결될 때 가장 보람"

지역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동료 의원들에게는 든든한 다선 의원으로, 친구같이, 엄마같이, 따뜻한 이웃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8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이자 구의3동 주민이신 박삼례 의원의 인터뷰를 위해 광진구의회 의장 집무실을 방문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광진구의원으로 활동한 4선 의원 박삼례 의장은 광진구의회 제5·6대 복지건설위원장,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진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및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구의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차산 메아리 주부 모니터 봉사, 광진문화원 자원봉사, 구의3동 부녀회장으로서 봉사활동 등이 구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격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인 저는 쉬는 날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다가도 민원이 있으면 뛰어 나갑니다. 민원이 없는 주말에는 교회 봉사에 나가고 있고요. 주방 봉사를 1년 동안 56회 한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출석했지요.

구의3동에 얼마나 살았고
최근에 구의3동을 위해 하신 일



저는 구의3동에서 1999년부터 살았어요. 그 이전에는 경기도 부평에서 중곡동을 거쳐 잠실 장미아파트로 이사와 잠시 살다가 구의3동 현대아파트로 이사온 후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의3동 청사에 작은도서관을 유치하여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동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이 보람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구의3동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구의3동 어린이공원을 개나리, 장미, 이팝 등 사계절 꽃피는 장미공원으로 만드는 일이며 작년에 장미를 일부 심었습니다. 구의공원과 현대아파트 사이를 장미터널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또한 도로를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확보 중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2006년부터 광진구의원으로 활동한 4선 의원 박삼례 의장은 광진구의회 제5·6대 복지건설위원장,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진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및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8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다양한 시도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사회 각 분야의 간담회, 구민초청 의회참관, 의회 애니메이션 제작, 의회홍보관 설치, 의정활동사진전 개최, 의회 간 자매결연 등 이전 의회와 차별화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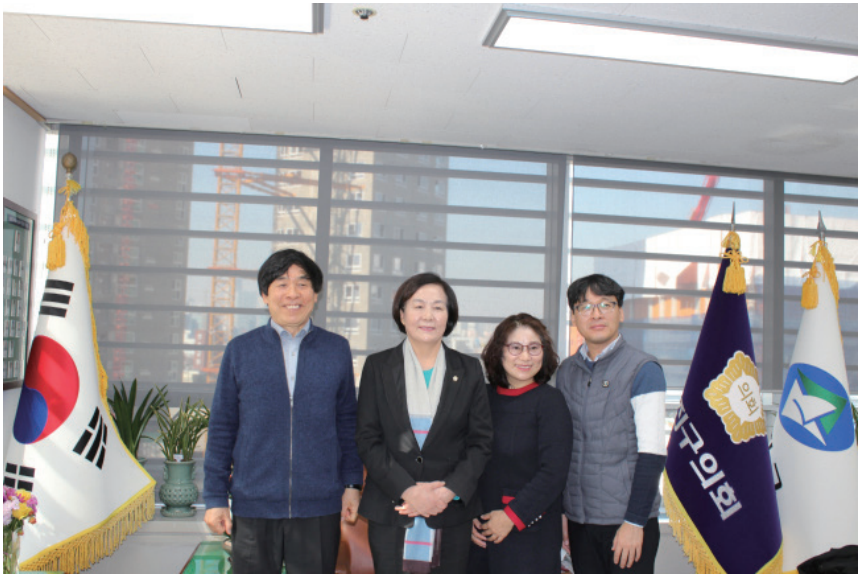
광진구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과 어려웠던 일

관의 문턱이 높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에게 쉽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구하기가 사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통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력하여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노력 끝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의원으로서의 가장 뜻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의1, 3동 주민센터 청사 및 자양문화체육센터 등의 건립부터 작게는 강변역 벽면 녹화사업, 구의3동 목련공원 외 다수의 어린이공원 바닥 교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경사로 지붕 덮개 설치로 주차환경 개선 등까지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4선 의원으로 2006년부터 지역의 살림꾼 노릇을 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민을 살피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일을 처리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구 의원이자 광진구의회의 의장으로서 좀 더 채우지 못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싶습니다. 8대 전반기 2년 동안 초심으로 달려왔다면 후반기 2년 동안은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3동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한 말씀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지만 모든 주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틈새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는 매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에 앞서 주민 한분 한분이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으고자 합니다. 구의회가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역 주민과 의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활동이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광진구민 모두가 의회를 더 가까이 하고 더 공감할 수 있도록 14명의 광진구 의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구의회


의회
구의회

30여 년 광진구 공직생활이 빛을 발할 때

구의3동 지준호 동장

일시 | 2020. 09. 15.(화) 14:00
장소 | 구의3동 주민센터 동장실

지준호 동장

"첫 단체장 부임지 구의3동에서 품은 꿈"

청량한 바람과 드높은 하늘 덕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아챈 어느 오후, 주민자치센터 동장실에서 지준호 구의3동 동장을 만났다. 구의3동 동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남짓인 지준호 동장은 한창 바쁘게 업무 중이었지만, 마을기록지원단이 찾아오자 활짝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로써 자타공인 '광진맨' 지준호 동장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볼 수 있었다.

광진맨의 30년 공직생활

지준호 동장님은 광진구와 성동구가 분리되기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광진구의 이력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을 법합니다.

제가 지금 구의3동 동장이 되기까지 30여 년간 광진구에서 일한 '광진맨'입니다(웃음). 주민자치센터에 오기 전에는 주로 구청에서 일했고요. 총무, 감사, 기획 등 광진구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두루 거쳤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치며 광진을 가꿔나가는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추억이 많이 쌓였고 광진구 사랑도 두터워졌다고 느낍니다.

지준호 동장님이 공직생활 초반에 기획한 사업 중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업도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양3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지역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장미 마을 만들기'와 '직거래 장터'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장미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장미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장미 마을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착안한 건지 궁금합니다.

당시 자양3동은 거주형태의 90%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마다 담장이 많아서 장미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더라고요. 또 장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 피는 꽃이라는 장점도 있었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장미 축제로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밖에 지준호 동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의미 있었던 사업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4~5년간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기획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따로 봉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참 보람된 시절로 기억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구의3동

지준호 동장님이 여러 부서의 일을 섭렵하고 단체장으로 임명된 첫 부임지가 현재 계신 구의3동입니다. 구의3동으로 부임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의3동은 푸근하면서 정갈함이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주택가와 도시적인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위치해 특별한 분위기가 공존하지요. 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 간의 정이 두텁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구의3동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의3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근처에 동서울터미널이 있고, 이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재개발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역사박물관의 건립도 예정돼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으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이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상권과 볼거리가 준비된다면 구의3동은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잠시 미뤄졌지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특화 사업도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추진하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안심 식당 상가 지정 사업'에 대비한 구역 설정과 구의3동의 특성을 잘 녹여낸 테마 선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심 식당 상가 지정 사업은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또 관광적 요소를 살린 테마를 설정할 수 있지요.

구의3동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중년 세대는 추억을 느끼는 공간으로, 노년 세대는 추억을 돌아보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구의3동이 되겠지요. 또 구의3동 곳곳에 있는 '시의 거리'와 연계해 문학과 낭만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실현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보를 공유해야겠지요.

용마산에서 배운 공직생활의 지혜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준호 동장님에겐 즐거운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역발전과 더불어 구의3동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고민도 많으시리라 짐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마을을 가꿔나가는 조직이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과 접목해 힘껏 응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역에 건의하는 절차에 쉽게 접근하도록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마을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데 행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구의3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애착이 있는 주민들이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지준호 동장님의 공직생활 외의 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은 소문난 '워커홀릭'인데요. 지준호 동장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하는지 혹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음가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일하는 순간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워커홀릭이라고 소문났을 수도 있겠네요.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과 닮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특히 집 근처 용마산에 거의 매일 새벽마다 오릅니다. 은은한 숲의 향기는 활기찬 하루를 예약해 주는 선물이고, 고민이 있을 때 유연하게 해결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평지에서는 한두 가닥의 길을 만날 수 있다면, 일단 산에 오르면 내려갈 길이 수없이 뻗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때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갈래의 방법을 생각하는 방식이 산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새벽 등산을 마치고 상쾌한 마음가짐으로 출근하면 어려웠던 일을 풀어내는 게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지준호 동장은 빼곡한 일정 사이에도 마을기록지원단과의 인터뷰에서 명확하면서 재치있는 답변을 수 없이 들려줬다. 그 확고한 답변 속에서 구의3동의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었고, 구의3동에 '만능 동장님'이 오셔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느낄 수 있었다.


시(詩)의 거리


대관령
신동승
저기 물안개 소낙비 아련한 산은
그려도 움직이는 한 폭의 비단
저기 빨간 단풍으로 색칠한 산은
의연히 손짓하며 우릴 부르네
대관령 아흔아홉 대관령 굽이굽이는
내 인생 초록 물 드리면서 나그네가 되라네
저기 찬바람 하얀 눈 소복한 산은
누구를 기다리다 봄은 먼데
저기 진달래 철쭉으로 불타는 산은
구름도 수줍어서 쉬어 넘는데
대관령 아흔아홉 대관령 굽이굽이는
내 인생 보슬비 맞으면서 나그네가 도리네


가을에 묻듯
이애진
꽃처럼
살면서 시를 쓰다가
가을이 깊어가는 날
나도 시처럼 가고 싶다
마침표 대신
느낌표를 남기고

현대아파트 시의 거리







프라임아파트 시의 거리

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광진구의 삶

구의3동 주민자치회 정선영 문화체육 분과장

일시 | 2020. 08. 20.(목) 14: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정선영 분과장

"문화봉사자에서 광진구 주민의 행복 일구기까지"

올해 여름은 여느 때보다 태풍이 잦았다. 그 영향으로 바람이 제법 불었던 어느 오후, 광진구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장이자 시인인 정선영 분과장을 만났다. 시인이며 시 낭송 지도자로서, 구의동의 오랜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에서 문화체육 증진을 도맡은 일원으로서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자리였다. 인터뷰어의 긴장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정선영 분과장은 자신이 쓴 시집 '고백'과 시 낭송 CD를 선물로 내밀었다. 덕분에 창밖의 거친 바람과 달리 인터뷰 자리는 내내 훈훈함이 감돌았고, 경쾌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봉사하는 시인의 삶



안녕하세요 정선영 분과장님,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분과장님은 우리 광진구에서 시인, 문화자원봉사, 그 밖에도 여러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분과장님을 모르실 분을 위해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인이고 시 낭송가이며 시 낭송 지도자입니다. 노래는 작사가가 있고, 성악가는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듯 시 낭송가는 시를 멋있게 낭송하는 사람이지요. 저는 직접 시를 쓰고 또 좋은 시를 발굴해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읽을 수 있도록 시 낭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고 여유시간이 생기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시 낭송 CD 제작을 완료했고, 지난 8월에는 시집 '고백'을 출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의3동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엔 구청 명예 행정관, 구삼마을기업의 상무이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외에 다른 일도 맡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 광진 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년 전 사회적 이슈였던 발암 물질 라돈 침대 보상 문제, 그 이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를 위한 소비자 보상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웃과 지역을 향한 사랑법은 '시'

정선영 분과장님의 시 중 '하루 더'를 참 좋아합니다. 또 시집 '고백' 중에 '구삼마을'이라는 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광진구의 구삼마을, 다시 말해 구의3동 마을을 표현하신 거라 짐작이 갑니다. 그만큼 구의동에 애정이 각별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구의동에 산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진득한 애정이 생겼지요. 특히 시 '구삼마을'에서는 마지막 구절인 "광진의 수도/바로 이곳 구삼마을이다."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확고하게 표현했죠. 애정이 각별한 만큼 지역의 문화체육 공간과 시설의 확충에 열의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구의3동에 설치된 '시의 거리'는 제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공들여 만든 거리입니다.

정선영 분과장님이 맡고 계신 '광진 시니어 낭송회'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시니어 낭송회'는 시 낭송을 통해 이웃에게 시의 멋과 향기를 알리는 모임입니다. 구의3동 주민센터에서 '시 낭송과 인문학' 수업을 통해 만난 분들과 시 낭송 공연을 하고, 시 중심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문화 봉사를 하는 시니어들의 낭송회입니다. 그동안 구의3동의 초등학교, 요양병원, 지역 축제, 일일 찻집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리에서 총 33번의 무대 낭송 공연을 열어 문화봉사자로 활동했지요. 그 밖에도 25명의 시 낭송을 CD로 제작하고 애송 시집을 발간하며 좋은 시 보급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한 시 낭송회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주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며

정말 의미있고 인간미 넘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문화체육분과장으로도 계신데요. 문화체육이라는 건 시 중심으로 해오셨던 활동에서 더욱 확장된 분야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화체육분과를 맡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체육동호회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복한 삶에 체육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가까이 있어야겠지요. 저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어야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은 씨줄과 날줄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어야 저를 포함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이 곁에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분과의 목표는 '함께하는 문화·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내년에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주인공이자 청중으로 참여하는 문학 강연, 음악회, 주민참여 공연, 인문학 강연, 구삼 문화 한마당까지 5번의 문화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단합을 위해 '몸 튼튼, 마음 튼튼'이란 주제로 생활체육 동호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동호회는 배드민턴 동호회인데 주 1회 2시간씩 7개월간 강습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10월에 '주민자치회기 배드민턴 대회'도 예정돼 있어요. 세 번째 사업은 내가 사는 지역인 광진구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로 알기 위한 '아차산 알기 산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어 선생님들도 꼭 참여해 주세요(웃음).

모두 유익한 사업이라 저희도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참여하고 계신 주민자치회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사태로 내년도 예산만 세우고 계획한 사업들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틈틈이 회의하고 의제 결정을 하고 50명 분과위원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데서 안도를 느낍니다.

좀 더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의와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처음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지금도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최선을 다해 이끄는 간사님들과 자치지원관이 있어 구의3동은 더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시 낭송 전문가 특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정선영 분과장은 인터뷰 중에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김근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일부를 낭송해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꽤 긴 인터뷰였지만 정선영 분과장의 은은한 어조 속에 확고한 지역 사랑과 열정이 느껴져 지루할 틈 없이 알찬 시간으로 다가왔다. 정선영 분과장이 계획하고 꿈꾼 바와 같이 광진구의 모든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공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구의3동이 제2의 고향

구의3동 주민자치회 이지훈 교육홍보 분과장

일시 | 2020. 09.15.(화) 16:00
장소 | 구의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이지훈 분과장

"주민자치회 젊은 일꾼이 되다"

광진구 마을자치이야기 인터뷰를 위해 구리에서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인 다목적실로 들어오는 위원님은 활기차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여서인지 음성과 행동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배어나고, 배려심이 몸에 익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경영지도사 이지훈 대표

이지훈 교육홍보 분과장님은 10여 년 전 대기업 직장을 다닐 때 국가자격증인 '경영지도사'를 취득하여 '잇츠이노베이션' 대표로, 창업 시 어려운 점, 기업의 경영 진단, 자본 조달 방법,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기획을 도와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에서 세무와 회계 분야 공부를 하고 있고, 연내 출간을 목표로 저서도 집필 중 이었다.

중소기업, 소기업을 도와주는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 기업들은 1년에서 3년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폐업하지 않고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꾸준히 5년, 10년 이상 경영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시기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손해를 최소한으로 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창업한지도 10년 정도 되었네요. 창업하고 저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월급쟁이 탈출, 실패하지 않는 창업 경영 실무'라는 책을 낼 예정이에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출간하려고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월급쟁이들이 나중에 많이들 창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봤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을 새롭게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길을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집필한 것이지요.

마을 일 시작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부터

이지훈 분과장님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마을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몇 년 전에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결이 되어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에 지금은 퇴임하신 그 당시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마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장사하면서 마을 일까지 하시느라 상대적으로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밥도 주로 시켜주시곤 했었거든요. 근래에 와서 저도 나이가 들고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 조절이 가능해졌고, 마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할 때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이고 마을하고 나하고는 무관했는데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민들도 잘 알게 되더라고요. 마을이 이제 제 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일 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모여 마을이 발전되도록 얘기도 나누고, 실행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 수도 있으니. 보람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마을 일은 '통합방위협의회'였는데요, 동마다 구마다 다 있어요.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활동하기 전 2년 정도 되었네요. 19년도 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구의3동 자치회 위원 모집을 하던 시기에 퇴임하신 동장님께서 저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거니까 지훈 씨가 했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셨어요. '괜찮겠다.' 싶어 교육을 받고 추첨 과정에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 주민자치회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생각

현재 구성원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자치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은 옛날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주도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자치회 운영 내규를 만들고,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기 위해 회의를 통해 의제를 만들고, 더 많은 주민이 모여 활동을 확정하기 위해 총회하고 보고하는 과정은 달라졌는데 일을 함께할 주민은 여전히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회의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고, 오셔서 어떤 의견을 내시기보다는 '결정되면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자치회로 더 많이 영입이 되면 좋겠어요.

교육홍보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교육과 홍보를 아우르는 분과인데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교육을 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홍보 쪽에 더 중점을 둔 의제를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지훈 분과장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니 구청에서 발간하는 '아차산 메아리' 형태와 유사하고 구의3동 소식만 전하는 소식지를 만들 예정이고, 구의3동이 시작되는 공간에 게시판도 만들어 마을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 소식지는 여러 이유로 내년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관건이어서 분과위원들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을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시작으로 그 다음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면 마을이 좀 변화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 마을에 공원은 어디에 있고, 가장 경치 좋은 명소는 어디고, 시의 거리는 강변 나들목, 현대 아파트, 구남초등학교 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게시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벽에 붙이는 거나,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정형화된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요즘 시대와 걸맞는 '전자 게시판'을 추진했어요. 입력만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정보를 주는 형태였지요. 그런데 전자게시판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구에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의3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형 게시판'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장소는 구의역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오는 삼거리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공원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점

분과장님은 주민자치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장 말씀을 듣다보니 열정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실현하면 주민자치회에 젊은 일꾼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살아 온 경험이 많고 좋은 분들이지만 회의가 많고,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것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의 바람은 젊은 자영업자든, 젊은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젊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젊은 분들에게 자치회를 알리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 년 내내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자치회는 늘 열려있다. 자치회는 '주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등등 홍보를 꾸준히 하는 거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채용이나 어떤 국가적인 활동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을 위해서 위원들 각자의 시간을 투자하고 급여나 회의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는 통장협의회, 생활협의회 등 여러 직능단체 보다 활동량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자치회 위원들에게는 특별한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요. 주민자치회 경력이 있으면 채용 시험에 가산점이 있다 하면 젊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주민과 유대감도 있고 자치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치회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치회 활동을 했더니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젊은 지원자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또 자치위원 위촉장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니 구청 차원에서도 주민자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마음을 내어 주면 더욱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의3동 주민자치회 교육홍보 분과에 관한 일뿐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당면한 숙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는 이지훈 분과장님이 계셔 구의3동 주민자치회는 물론이고 광진구 주민자치회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구의3동은 환경, 교통, 운동 3박자 갖춘 마을

구의3동 주민자치회 나희숙 생활안전환경 분과장

일시 | 2020. 10. 22.(목) 16: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나희숙 분과장

"웃음꽃 피어나는 마을 만들고 싶어"



구의3동 주민자치회
생활안전환경 분과장 나희숙 입니다

저는 구의3동 주민자치회 생활안전환경 분과장을 맡고 있는 나희숙 입니다. 전에는 삼성생명 FC 활동을 했고 지금은 중식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활동은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재능기부로 도배, 바닥, 전기공사 등을 자재만 사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공사하고, 청소하고 이불까지 세탁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신체 장애를 가진 집에서 청소, 도배, 싱크대 청소를 하고 난 후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독거노인 쪽방 봉사활동을 할 때는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구의3동은 환경, 운동, 교통이 좋은 마을입니다

저는 구의3동에 약 25년 살았고요. 봉사활동과 향우회 활동을 통하여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3동은 앞에는 한강, 뒤에는 아차산이 자리한 배산임수 마을로서 걷기 운동 같은 건강관리를 하기에 안성맞춤 지역입니다. 저의 집 앞에는 테크노마트 공원이 있고 특히 역세권으로서 전철 2호선과 5호선의 혜택을 누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더욱 더 좋은 환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소개

저는 20년에 주민자치회 활동이 처음이지만 생활안전환경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의 비전은 '밝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꽃이 피어나는 구3마을 만들기, 밝은 이미지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 조성'입니다.

20년 10월 28일에는 강사 초빙해서 분과위원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주민들과 천연 비누 만들기를 통하여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계기를 갖고 주민들과 분과위원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7일, 28일에는 산의마을 어린이집, 산의경로당, 무단투기지역에 꽃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삼계탕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움직이게 되고, 활동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 후 식사라도 함께 하면 좋은데 경비 문제가 발생하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1년에는 주민자치회 식비를 잘 배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조금 더 따듯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보완해주고 나와 조금 달라도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없어 아쉽다는 나희숙 생활안전환경 분과장님의 열의에 찬 모습에서 구의3동의 발전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바쁜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나희숙 분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마을에서 시작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2막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윤영희 감사

일시 | 2020. 10.15.(목) 16:00
장소 |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

윤영희 감사

"마을계획단과 자치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열다"

오곡이 무르익고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 한 가운데 있는 날 구의3동 주민자치회 감사님을 자치센터 5층 대강당에서 만났다. 윤영희 감사님은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 일을 오랫동안 하고 2017년 정년퇴직을 하였다. 정년퇴직을 하고 구의3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문의를 한 게 계기가 되어 마을계획단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한다.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들어오는 모습이 풍요한 가을만큼 넉넉함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계획단 분과장과 주민자치회 감사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2막

구의3동 주민자치회 감사로 활동하는 윤영희 입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추첨이 되어서 위원이 되었고 저를 감사로 추천한 분이 있어서 감사까지 되었습니다. 추천한 분이 계셔서 거절하는 것은 실례가 되는 것 같아 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로서 책임이 막중하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임원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감사가 제대로 제 위치에 있어야지 주민자치회 활동이 든든할 것 같은 생각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감사를 하기 전에는 구의3동 마을계획단에서 분과장을 했어요. 2017년 6월 정년퇴직을 하고 7월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구의3동이 정말 좋고 애착이 가서 이사 갈 생각은 없고, 마을에서 26년을 살았어도 마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저의 인생 2막을 여기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능은 많지 않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 2019년 12월까지 마을계획단 환경개선분과장 일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분과에서는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 구의3동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구의3동 마을 골목골목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담배꽁초 줍기, 흡연실 없애기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효과를 주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활용지도사로 시니어들에게 배움을 주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윤영희 강사님

윤영희 감사님의 하나 더 새로운 일로 정보화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라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사회에 나와서 새로 일을 배워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1급을 취득하여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활용 강사인데요. 거의 사회봉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강사해도 강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리봄'에서 지원을 받아 무료로 가리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시니어 플래너 협동조합'과 '리봄' 두 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강사가 앞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와서 다 한사람씩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시니어들의 특징이 잘 못 따라 하면 그때부터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 협동조합은 보조강사 제도를 사용 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배우는데 남편은 따라 가지 못하고 부인이 잘하시면 부인이 보조강사가 되어 강사님은 강의를 못 따라 가는 분들에게 가서 천천히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죠. 이 방법을 이제 서울시도 따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 배울 수가 있어서 기뻐하세요. 복지관이고 주민자치이고 다 무료로 배울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안됐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리봄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강사님들과 같이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는 활동만 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돼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즐거운 거 이런 거를 배워서 가르친다는 거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부담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인생 2막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큰 욕심 안 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구의3동 마을계획단에서 기획한 구삼축제

윤영희 감사님은 직장을 다닐 때는 매우 바빠서 동네 분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마을계획단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도 마을과도 친숙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계획단에서 활약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마을계획단 하면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마을계획단에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요. 여러 의제를 내놓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치지요. 그 다음 의제를 쫙 붙여놓고 그중에서 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다시 회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환경분과에 있어요. 하지만 분과에 상관없이 모든 의제를 도출해 놓고 그 의제를 분과에 맞는데다 붙였어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가? 또 추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을 짰어요. 내년 계획을 올해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계획단이 굉장히 잘 뭉쳤어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덩달아서 회의도 하고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과 손발이 잘 맞아서 재밌게 했어요.

구삼축제 기획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 중 물놀이 축제가 가장 기억이 나네요. 커다란 튜브에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내려가서 물속에서 노는 거 있죠. 그 때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혹시나 아이들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햇빛이 쨍쨍 나서 모자를 쓰기는 했지만 많이 탔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후유증도 있었지만 참 보람된 하루였어요. 또 주민들이 공연도 하지만 광진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음악 연주회, 부채춤 공연, 아이들의 힙합 공연 등 다양한 분들이 축제를 함께 했어요. 구의3동 주민 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해서 축제를 즐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민자치회 회계 감사 윤영희

주민자치회 감사는 회계감사와 사업 감사가 있다. 윤영희 감사님은 회계를 담당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많이 못해서 감사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금년 상반기 때는 커다란 사업은 못했고 조그마하게 여기 안에서 행사하는 것들, 분과별로 했고요. 상반기의 서류를 전부 보면서 혹시 뭐가 빠졌나 하는 것들을 봤는데 거의 없었어요. 주민자치회 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 부분이 많았는데 교육을 거의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주로 지출된 부분은 사무실의 소모품 비용이에요. 또 건강복지분과에서 콩나물 키우는 키트, 옥상에서 하는 행사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지출이 많이 안 되었어요. 하반기에는 줌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회의, 교육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그 비용이 지출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주민자치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을 정지시켰기에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노고가 더 많았다고 한다.

현재 가장 힘든 것이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를 해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주민자치 위원 전체 동의를 얻어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 전체에게 우편으로 예산서를 보냈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답신을 받아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지요. 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회의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십명이라는 이 인원이 보통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력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코로나19로 상황이 이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고생이 많으니 어떤 의견을 달라고 하면 즉시 답변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조금만 상대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씩 배려를 해서 소통이 되었으면 해요. 또한 코로나 시대에 전체회의를 할 수 없는 자체가 어려운 거구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고생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구의3동 주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윤영희 감사님은 동서울터미널과 강변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타지의 사람이 많이 오가면서 주민으로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한다.

구의3동 주민들은 활동하면서 보니까 서로 협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한 점은 구리 방향 포장마차가 인도를 침범해 지나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겹쳐 더욱 불편하지요. 그분들 생계이기도 하니 구청에서 주민 입장과 그 분들 상황을 고려해서 중재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편안하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새로은 것을 배워서 남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윤영희 감사님. 지난 인생 1막보다 앞으로 인생 2막이 더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50+ 마을기록 지원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의3동 골목



한양빌라

일송문화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의3동 주민자치회 한길수 위원

일시 | 2020.08.06.(목) 10:00
장소 | 구의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한길수 위원

"미래를 꿈꾸는 구삼마을이 자랑스러워"

1960년부터 60년간을 구의3동에서 사시며 구의동 역사의 산 증인이신 일송 한길수(一松 韓吉洙) 선생님을 찾아뵈고 구의3동의 궁금증과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어봤다. 금년 연세가 88세임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음성에 힘이 넘치셨다.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 '별이 빛나는 밤'을 선물로 주시며 반겨주셨다.

구의동 지명 유래

구의동 지명 유래에 대해 들려 달라는 요청에 한길수 선생님은 먼저 이곳에서 살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셨다. 수유리에서 살다가 1960년에 구의동으로 왔으니 이사 온 지 60년, 이사 회갑을 맞이하셨다고 하신다. 친구인 광문고등공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곳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구의3동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하신다.

제가 구의동 유래를 알아보았어요. 옛날 522번 버스 종점이 있던 마을에 9개의 우물이 있다고 하여 그쪽을 구정동(九井洞)이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산기슭 언덕 위에 집이 있는 마을을 '산위 마을'이라고 했다 합니다. 이 산위 마을이 산의 마을로 변했고 구정동의 구와 산의 마을의 의를 따서 구의동이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영화사에서 한강까지가 다 구의동이었어요. 그 후 구의동이 구의1,2,3동으로 갈라졌죠. 뒤에는 아차산 앞엔 한강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입니다. 그래서 산자수명한 마을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추미애 법무장관, 김선갑 구청장, 박삼례 구의회 의장님 등이 구의3동에 살아요. 또한 내가 문인이라서 알아보았더니 구의3동엔 수필가, 시인 등 문인이 15명이나 살아요.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마을입니다. 구의3동에 사는 하루하루가 즐겁죠. 제 친구들 만나면 여기로 이사 오라고 권유한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동기





한길수 위원은 1995~96년경 구의원 권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을 시작했다 하신다. 구체적인 동기는 조그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강변역 나가는 길 옆에 긴 의자가 놓여 있기에 치워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치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에게 부탁을 했더니 3일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그 후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권유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서를 많이 바로 잡아 놓았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결산보고, 명년도 예산편성 등이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로 작성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했지요.

문학 활동과 장학 사업

어린 시절부터 책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와 '순애보'라는 책을 서로 먼저 보겠다고 다투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지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어요. 서울로 올라와 한맥문학을 통해 수필로 등단했고 몇 달 후엔 현대문학에서 시로 등단하여 시인 겸 수필가로서 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만 내면 사람들이 읽질 않아서 수필과 시를 동시에 실어서 책을 냈습니다. 수필도 재미있게 써야 사람들이 읽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쓰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문학기행도 가고 시낭송회를 하며 시유문학에 글도 내고 있지요.

구의역 2번 출구 앞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동부법원과 검찰청이 있을 때는 4층 임대가 꽉 찼는데 지금은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니까 건물이 텅 비었어요. 다시 광진구청이나 여러 행정기관이 들어오면 임대가 찰 것으로 예상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구청장이 추천한 구민 1명, 시골 청주한씨 종친회장이 추천한 효부 효자 1명, 한맥문학에서 추천한 수필가 1명, 시우회에서 추천한 시인 1명, 시골 중학교 모교의 교장이 추천한 학생 1명 해서 모두 5명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주기 위해 제 호를 따서 일송문화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후 재단의 재산은 국가에 배속할 예정입니다.

구의3동의 자랑거리 “미래를 꿈꾸는 구3마을”

구의3동에는 말이죠, 동서울터미널이 있어서 사통팔달 교통이 참 편리해요. 옛날에는 아내와 함께 홍천 5일장에 가서 구경하고 국밥도 사먹고 물건도 사오고 하는 게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구의3동은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구의시장 쪽에도 살아봤는데 한강이 인접해 있는 구의3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워요. 그게 강물 덕이죠. 이렇게 구의3동은 아름답고 편리합니다. 구의3동 표어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제가 ‘미래를 꿈꾸는 구3마을’이라고 의견을 냈어요. 이것을 채택이 되어 자랑하고 싶어요.

구의3동에 구의공원이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시골에서 농수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고, 노래자랑, 장기자랑도 하고 축제 때는 통별 부스도 운영합니다. 또한 구의공원에서는 새벽운동, 리듬체조도 활발하게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구의3동은 시의 거리가 또 유명해요. 현대2단지아파트 주변 담벼락, 현대1단지 큰 길가, 한강 나가는 터널에 시의 거리를 조성했어요. 제 시도 하나 걸려 있어요.(모두 웃음)

그래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운문, 산문 등의 어린이백일장을 실시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백일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길러주고 문학적 자극을 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백일장을 주민자치회 문화분과 테마로 잡아 놓았어요.







얼마 전 한길수 선생님은 농협에서 우량조합원으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나와 섭섭한 적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미리 보여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다. 한길수 선생님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약을 기대하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예술

구의3동 주민자치회 장성은 위원

일시 | 2020. 08.06.(목) 11:00
장소 | 구의3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장성은 위원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구삼마을 만들고 싶어"

장마가 한창이어서 눅눅함이 곳곳에 묻어 있는 자치센터 다목적 홀로 밝은 목소리와 활짝 웃는 얼굴로 장성은 자치위원님이 들어왔다. 날씨로 인해 자칫 인터뷰가 무거워질 수 있었는데 자치위원님의 쾌활한 성격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인터뷰를 내내 즐겁게 만들었다.

문화예술 공연 기획자 장성은

장성은 위원은 성수동에서 태어나 예술전문학교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예술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돌아올 즈음에 부모님께서 구의3동으로 이사를 해서 구의3동이 친정이 되었다. 일하는 엄마였기에 부모님께 아이 돌봄도 부탁드려야 하고 교육 환경도 좋은 것 같아 위원도 구의3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자치위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연 기획의 일을 하고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아트 마켓' 한국 본부장을 맡고 계셨다. 또 세종대에서 '예술경영'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하신다.

해외 공연을 한국에 소개하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연을 파는 것이지요. 공연을 파는 시장이 1984년에 몬트리올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술 시장이 열리면 그곳에 200여 개의 에이전트가 모여요. 공연을 기획자가 소개하면 사 와서 다음해 공연하는 방식이죠. 제가 한국 파트너이고요.

장성은 위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거나 아주 적게 열리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아플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이고 실생활에 접목되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

예술은 기술과 미학이 합쳐지는 것이지요. 예술은 보통 전문 예술인이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이 본인의 감성을 꺼내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문학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은 연극으로, 또 다른 분은 몸짓으로, 상상 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표현하지요. 우리가 가진 것을 표현할 때 예술이 된다고 생각해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니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 할 수 있지요.

산과 강이 있어서 더 행복한 구의3동

구의3동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장성은 자치위원에게 구의3동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다. 큰 문제없이 비슷비슷한 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고 한다.

구의3동은 색깔이 참 예뻐요. 자연의 색깔이죠.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광진정보도서관이 나와요. 거기에서 책을 빌리고 잠시 우아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아차산을 올라가요. 집에서 아차산까지 갔다가 오면 딱 2시간 걸려요. 가까이에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이런 구의3동이 저는 참 좋아요.



구의3동,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자치위원

장성은 위원은 친구 아버님을 통해서 자치위원회를 알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에 자치위원이 되셨다고 한다. 구의3동은 부모와 아이가 있는 전형적인 가족 비율이 높은 마을이라 하신다. 부모와 아이가 더불어 살면서 꿈을 꾸는 마을로 만들고 싶은 자치위원의 계획과 소망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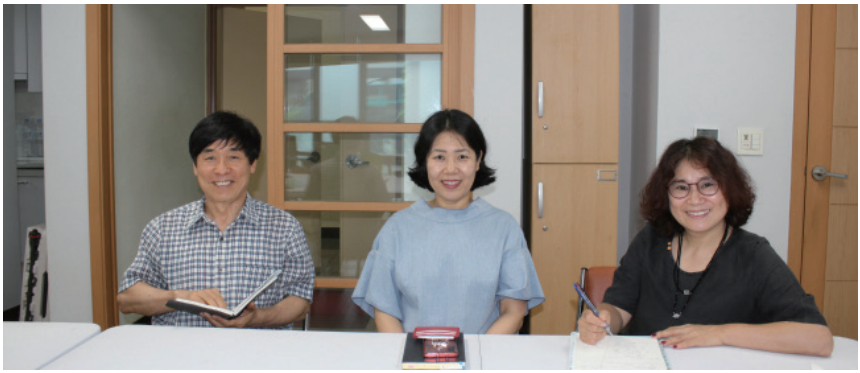
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로 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사는 동네니까 조금 나쁜 일이 있어도 이해하게 되는거죠. 두 번째는 경제나, 일반적인 생활 법규 같은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우리 마을에 사는 여러 인맥을 파악 활용하면 좀 더 발전하는 구의3동이 될 것 같아요.

3~4인 가족 구성원이 많은 구의3동은 학생과 교육열 높은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모여 공부하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복지보건분과에서 아차산 가족 걷기 행사를 했고, 지속적인 행사로 만들었으면 해요. '걷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 주제를 달리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하고 싶은 게 우리 집 주차장 앞에 조그맣게 프리마켓을 여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팔고 교환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지요.

지금 자치회관운영분과에서 두 가지 의제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경제 활성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축제'예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서로 만나고, 즐기고, 알아가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 좋겠어요.

강변역 근처에 포장마차가 많잖아요. 사실은 구의3동 주민 중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장사를 하는 분과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 모두 상생해야 하잖아요. 외국의 좋은 사례를 찾아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은 위원은 “어느 정도 오지랖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지랖 없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지나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오지랖이 넓으면 경청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리다 라고 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밖의 날씨는 찌뿌둥해도 인터뷰 공간은 경쾌한 목소리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장성은 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평생을 광진구 지키며 살아와

구의3동 주민자치회 양민우 위원

일시 | 2020. 08. 20.(목) 11: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양민우 위원

"분과 특성에 맞게 사업 재배치 해야"

장마가 끝났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탓인지 오전부터 주민자치센터 4층 사무실은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우리끼리 좀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양민우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들어오셨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명함을 건네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았다.

광진구에서 계속 살고 있는 양민우 위원

양민우 주민자치위원님은 광진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중 화양리에서 10년 살다가 구의동에 이사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신다. 양 위원님의 아버님께서 성동구 공무원이셨고, 그것이 광진구에서 평생을 살 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했어요.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서울시 협의회에도 참석했어요. 직능단체인 방위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예비군들을 지원해 주는 일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4년을 했는데, 처음 임기 2년 하고 2년을 연임하면서 4년을 한 것이죠. 당시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명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부담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행사를 하는데 1년에 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 하고, 회원과 임원의 찬조로 마련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위원으로 들어오기 주저하고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축제를 계획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체육회가 없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였죠. 축제는 주로 구의공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오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위한 무대 설치 비용이 부담되어 구청에 요청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구의3동에서 느끼는 남다른 격세지감

광진구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양 위원은 구의3동을 지켰다. 당시에는 이 지역은 뚝섬에서도 멀고 버스도 안 다녔으며 잠실대교가 1972년도에 생기면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안초등학교까지 매일 걸어서 다녔어요. 산 너머, 개울 건너, 건대 뒷산 넘어 일감호로 해서 모진동으로 해서 골프장 건너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1960년대)에 이곳은 야산이었고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건대 일감호는 한강 물을 끌어들여 만든 호수였고 설립자 묘지가 있기 전에는 그 자리에 인공폭포가 있었죠. 그 옆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건대 뒷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산 아래에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은 산을 깎아서 언덕에 집을 지으니까 산처럼 보이질 않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현재의) 자양1동 사무실 주변이 번화가였고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개천이 많았고 개천 주변에 논밭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곳은 나룻터처럼 되어 있었어요. 현재의 광진소방서 뒤에는 미군 위생부대가 있었고 그 옆이 모진동이었어요. 당시의 흔적들은 다 사라져 흐릿한 기억에 옛날 영화처럼 돼버렸고 현재는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 (지금의) 한양아파트 언덕 쪽에서 능골로 내려와서 좀 가면 유명한 능골 99칸 집이 있었어요. 능골 아흔아홉 칸 집은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아주 오래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는 석빙고도 있었어요. 능골 아흔아홉 칸 집은 현재 구남초등학교 자리로 추정합니다. 제가 9살쯤에 능골 언덕 위에서 당나귀 타고 사진 찍은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일동 웃음)

현재 하는 일, 보람 있었던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부동산을 중개해주기도 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한 마디로 말하며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양 위원님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있었다.

첫 번째 보람있었던 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제가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할 때는 광진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합회가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광진구 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우리가 협의회로 인정을 받기 위해 광진구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구청장님을 면담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정식 인정을 받아 구 조례로 제정되었어요. 차후에 주민자치회가 추진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주민자치회장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 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구청장님도 참여하고 구청 직원도 참여하여 구정에 관해 설명을 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보람이 있었던 일은 구의3동 축제를 통해 마을에 관심 없던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한 것이 나름대로 보람이었어요. 제가 활동할 때는 마을계획단보다도 부녀회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문화원 협조를 받아서 재능 있는 동네 분들을 초청하여 참여시키고 동민 위주로 준비하였으며 직능단체별로 솟대도 만들고 많은 물건을 판매도 했어요.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것

처음 시작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주민자치회 조직이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분과의 특성에 맞게 일을 해야 하고 임원들은 분과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과 일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축제를 문화체육분과가 아닌 운영분과가 하고 있고, 야외 물놀이 행사는 문화체육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과를 나눈 의미를 더 되새겨 봐야 합니다. 분과에서 나온 내용을 수합해서 사업내용에 따라 분과에 맞게 사업을 이관하고 분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회장이 운영분과장을 맡는 것도 안 좋아 보이고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분과 활동에서 통합된 의견이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몇 명의 의견이 아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분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과장 회의나 임원 회의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을 분과별로 분류하여 사업을 각 분과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동네에서 탁구 최강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호회에 모여 있는 사람을 끌어내야지 개인적으로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축제 때 우승자, 준우승자,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면 성황을 이룰 겁니다. 또한 장소 섭외, 심사위원 위촉 등 준비 과정 자체가 마을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여를 바라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모처럼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화합을 이루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4회만 성공적으로 하면 정착이 될 겁니다.

구의3동 주민에게 바라는 것

지금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손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의 사업을 내 일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의 사업을 내 손으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주민자치회나 주민센터를 통해 건의하고 상의하여 마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방안은 동호회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호회별 모임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동장배 탁구대회', '동장배 당구대회' 등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축제 때는 색소폰 동호회, 기타 동호회 등에 출연과 참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중에 양 위원님의 휴대폰 벨이 여러 번 울렸다.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다시 인터뷰에 답변하곤 하였다. 무척 바쁜 시간에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파크골프 없인 못 살아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승돈 분과위원

일시 | 2020. 08.27.(목) 10: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김승돈 위원

"위원들끼리 자주 만나 마음 깊은 이야기 해야"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고 비바람이 멈춘 날 이른 시간 김승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먼저 와 계셨다. 파크골프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열정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야기에 공감되었다. 위원님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파크골프에 대한 사랑과 자치회 분과위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본인과 구의3동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구의3동 체육분과위원에 있는 김승돈입니다. 구의3동 바로 옆 강변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동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자치위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이 되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동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퇴직하고 시간 여유도 있고 체육과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자치위원이 되었습니다.

구의3동 자랑거리는 교통이 절대적으로 편리하다는 거죠. 동서울터미널이 있어서 전국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주도도 여기에서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교통의 요지인 구의3동이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버스터미널 가보면 엄청나게 멋있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놓았어요. 민자 유치를 해서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공존하는 형태도 있고요. 동서울터미널도 계획이 있으면 질질질 끌지 말고 빨리 팍팍팍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파크골프가 제 직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김승돈 위원님은 서울 광진구 파크골프 협회장님이다. 파크골프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14년쯤 되었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노인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파크골프에 대한 이야기는 열흘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위원님은 파크골프와 만남을 말씀해 주셨다.

퇴직하고 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를 했어요. 그 중 파크골프 쪽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또 취미로 사진을 좀 찍어요. 광진문화센터에서 개인전은 아니지만 같이 사진 공부하는 분들과 전시회도 했었고요. 파크골프를 처음 배울 때 파크골프 대회 사진과 영상을 찍어 대한파크골프 쪽에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찍는 것은 아니라도 일반 사진보다는 좀 나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좀 맡아서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해서 '아이고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해서 중앙 파크골프협회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채 1개, 공 1개로 골프를 즐길 수 있어요. 남녀노소, 장애가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멀리 골프장까지 안 가고 집 근처 주변에서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일반 골프장의 20분의 1 정도 면적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여러 군데 있어요. 서울에는 중랑천이 있는 동대문, 노원구, 천호동, 난지도, 잠실 등에 있어요.

광진구에는 한 홀도 없는 파크골프장이 양평에는 90개 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요. 그곳이 크니까 우리들도 치러 갑니다. 그 지역도 입장료는 서울과 같지만 점심 먹고 차 마시면 그곳의 상권이 살아납니다. 대회가 열리면 누구든지 참가비만 내면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제한을 두는데 그래도 600명 정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3, 4일은 먹고 함께 지냅니다다. 대회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요. 우리도 파크골프장을 빨리 만들어서 광진구 상권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교육장도 만들고요.

체육회 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분과위원으로

김승돈 위원은 마을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찾다가 분과위원이 되셨다고 한다. 문화체육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다.

광진구에 파크 골프장이 없어서 가까운 잠실로 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골프장이 폐쇄되었어요. 2단계 이전에도 9시부터 30명만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미리 6, 7시에는 줄을 서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크골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배드민턴으로 바꿨어요. 무엇을 하든 체육 쪽으로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국이 받쳐주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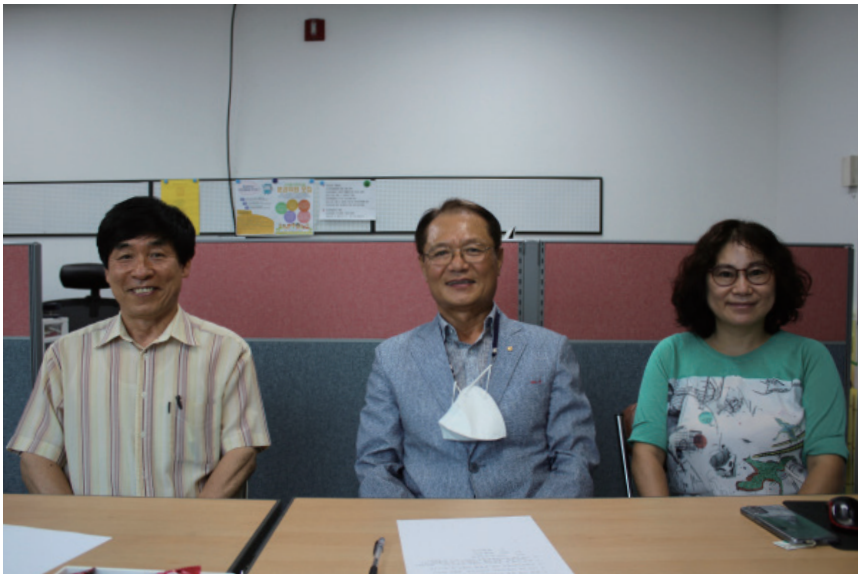
자치위원에게 바라는 말

코로나19로 인해 자치위원이 자주 만나지 못해 자치위원끼리 친해질 기회가 적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다.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셔서인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위생도 잘해야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하셨다.

무엇을 하든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뭔가 일이 된다고 봐요. 바쁘니까 문서나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는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서로 친해져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가 평생 가지는 않겠지요. 다만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금방 끝날 것인가 하는 차이는 있겠지요. 꼭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인 방역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한강 오솔길로 마스크 쓰고 열심히 걸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자기 면역력도 키우면 코로나19도 문제 없겠지요.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 명함을 드렸더니 광진 50플러스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참여를 하려 했더니 50세부터 64세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실망하셨다 한다.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시겠다는 위원님의 의지에 감탄했다. 건강한 삶을 사시는 위원님의 행복한 마음이 같이 일하는 구의3동 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인터뷰한 우리에게도 전파되는 듯하였다. 행복한 마음을 듬뿍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란?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일식 위원

일시 | 2020. 08.27.(목) 16:00
장소 | 무교동낙지 (개인사무실)

김일식 위원

"구의3동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따뜻한 여정"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고 느낀 어느 오후, 구의3동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 '무교동낙지(구 유정낙지)'에서 김일식 구의3동 자치위원님을 만났다. 무교동낙지는 김일식 위원의 일터인데,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한 시간이라 편안하게 인터뷰를 맞아주셨다. 김일식 위원은 "인터뷰는 처음이라 쑥스럽다."라고 했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 무교동낙지의 오랜 이야기와 구의3동 자치위원 생활까지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처럼 술술 꺼내놓기 시작했다.

22년 역사, 무교동낙지와 함께한 인생

오늘 김일식 위원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위원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세인 김일식입니다. 젊어서는 쭉 직장 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이 식당 '무교동낙지'의 문을 열었고요. 많은 분이 아껴주셔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영업 중입니다.

본래 이름은 유정낙지, 현재는 무교동낙지로 바뀐 이 식당은 단일 메뉴로 2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인데요. 오랜 기간 식당을 유지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무슨 일이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지요릿집이라도 고급 레스토랑처럼 손님께 깍듯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요. 그 초심이 오래가야 식당도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 직원에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당은 종업원이 이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직원이 자꾸 바뀌면 손님들께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당의 맛과 그 맛을 책임지는 직원들이 오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직을 잘 안 해요. 제가 다른 가게보다 조금이라도 잘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는 10년 넘게 일하시는 직원 두어 분 계시고, 그 외에도 몇 년씩 일하는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하면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하다 보니 단골손님이 아주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딸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삼대가 우리 식당에 찾아오는 거지요. 그럴 때면 '내가 정말 식당을 오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게에는 20년 넘은 단골손님이 꽤 많아요. 오래된 단골손님이 약 80%, 새로운 손님 20% 정도로 늘 채워집니다. 그런 점이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본래의 맛을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맛이 자꾸 바뀌는 식당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희노애락이 가득 고인 식당의 변화

그런데 최근에 유정낙지에서 무교동낙지로 이름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1950년대 무교동에 유정 실비집이라는 식당이 유명했습니다. 당시 무교동이 재개발되며 유정 실비집은 없어졌고, 저는 당시 유정 실비집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 유정 낙지라는 가게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유정 낙지의 상표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유정 낙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제게도 본사에서 주요 품목을 직접 공급받아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등록하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다는 낙지와 제가 평소 사용하는 낙지의 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주재료인 낙지 외에도 부재료 원가가 너무 비쌌고요. 본사에서 받는 재료를 쓰면 같은 음식에 1인분 가격 정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장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유정 낙지 간판을 내리고 무교동 낙지로 바꿨습니다.

간판이 바뀐 뒤에 매출에 영향이 있었나요?

간판을 바꿀 때 수십 년 쓴 이름을 바꾸는 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바를 손님들이 알아주신다고 느낍니다. 간판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배달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사태의 영향인지 저희 음식이 다시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인기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짐작하고 계세요?

우리 식당 메뉴가 매운 음식이잖아요. 매운 음식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달이 차츰 늘더라고요. 매운 음식이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있지요(웃음).

그리고 단일 메뉴를 고집해온 식당이지만 최근에 '낙지해물찜'이라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계속돼야 오랜 맛과 전통도 잘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좀 더 개발해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성과보다 창의적 성장을 기대하며

식당을 운영하시는 확고한 가치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러한 리더십과 우직함이 있어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고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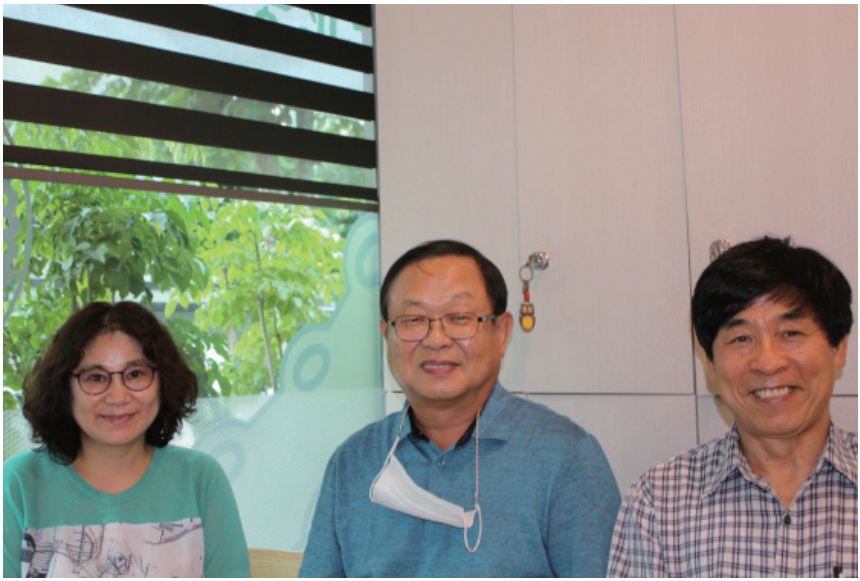
한 곳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하다 보니 명예 파출소장 위원회 제안을 받았어요. 명예 파출소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서 3년간 역임했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삼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 때 노래자랑, 척사대회 등을 열고 전라도 정읍의 서면 마을과 결연을 맺고 자치 행사도 했어요. 서면 마을 축제엔 저희가 방문도 하고요. 서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 교류도 하고, 마을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내셨네요. 지금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 계신데요. 구의3동 자치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수였어요. 연륜이 깊다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연세가 많으면 활동에 탄력이 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 구성에 성별과 나이 관계없이 다양한 분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도할 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성과가 없으면 어쩌나?' 같은 고민과 두려움 없이 창의적인 도전이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해도 모든 시행착오는 다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는 실패 확률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잠시 잊고 창의적인 길로 나아가는 주민자치회를 기대합니다.





김일식 위원은 결국 주민자치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구의3동을 위해 애써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현재 애쓰고 있는 자치위원들에겐 항상 고맙다는 속내를 비쳤다. 이토록 따뜻한 마음씨를 보이는 김일식 위원에게 고마워하는 이들 역시 구의3동에 수없이 많을 거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따뜻한 구의3동을 떠나지 못해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윤순옥 위원

일시 | 2020. 09. 15.(화) 10: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윤순옥 위원

"더 많은 위원과 자주 만나고 의견 나눠야 해"

오전 인터뷰를 위해 분주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했지만 이미 인터뷰 답변자께서는 도착해 계셨다. 날씨가 약간 덥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해 준 음료수를 마시며 약간의 담소를 나눈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자기소개

저는 35년째 구의3동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강남에서 살았는데 잠시 이사와 1년 동안만 이곳에서 살다가 다시 강남으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의3동이 너무 따뜻한 마을이라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35년을 정들어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학교운영위원장, 육성회장, 학부모회장 등의 봉사를 시작하여 36년째 봉사를 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광진구 총무를 맡아서 했고 구의3동에서는 여성회장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데 주변 사람들은 아빠의 좋은 머리보다는 엄마의 봉사 덕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

동부지검에서 학생 선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약 36명을 선도했지요. 1996년부터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상자 중에서 중학생이 가장 많아요. 선도가 잘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학생 비율은 약 80% 정도이고 20% 정도는 선도가 안 되어 보호관찰소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범죄 학생이 무서웠는데 선도가 잘되어 취직을 하거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고마운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선도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 단순히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과 부모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구의3동 자랑거리

구의3동은 원래 술집도 없는 조용한 동네예요. 오래된 사람끼리 알고 지내며 정이 넘치는 따뜻한 동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강남에 살 때는 조그만 소리에도 신고를 해서 삭막했어요. 구의3동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구의3동으로 다시 돌아와요. 또한,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힘을 합쳐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것도 구의3동의 자랑거리입니다. 광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구의3동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주민자치회 소속 분과 주요 의제와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것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였고 7년째인 금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50명으로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의3동을 걱정하고 필요한 활동을 의논하기 위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활동 중인 분과는 안전분과이며 우리 분과에서는 생활 관련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시에는 어버이날, 설, 추석에는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때는 보통 300명을 초대하면 600명의 어르신들이 오곤 했어요. 구의3동 외에 다른 동에서 사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은 주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1년 안전분과의 활동으로 담배꽁초 많은 전봇대에 금연 야광 홍보물 붙이기, 길가 화분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홍보를 위한 휴대용 재떨이 나누어 주기, 도로 파인 곳 안전하게 처리하기 등으로 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 5개 분과 모두 모여서 하는 총 합동회의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 1년에 4번인 전체회의도 6번으로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의제나 안건 등을 같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온종일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열중하는 윤순옥 님의 열의에 찬 인터뷰 내내 누구보다도 구의3동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신 윤순옥 주민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평생을 봉사하는 삶 살아

구의3동 주민자치회 오세순 위원

일시 | 2020. 09. 17.(목) 14: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오세순 위원

"주민자치회 암 예방 교육 필요"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무척 밝았다.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오세순 님께서 미리 오셔서 맑은 미소를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뿌려 놓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오세순 님께 감사드린다.

자기소개

그녀는 하루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 못 배긴다고 한다. 2018년도에는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6,000시간 이상 수상을 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봉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봉사의 여왕'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한다.

저는 시골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나이팅게일의 꿈을 안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 발맞사지, 요양보호사, 수화 등 많은 분야를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를 14년 했어요. 구의3동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 캠프도 운영하였고 영어 동화 구연 지도를 위해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9년 연말에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마치고 추첨으로 예비 3번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18일 자로 위촉장을 받고 다른 위원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현재 통장을 8년째 하고 있으며 수화봉사를 14년째 하고 있어요. 홍보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의 기자 생활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암 진단받고 며칠 후에 수술을 합니다.

오세순 님은 교육학사, 사회복지학사, 문학사 등 3개 분야의 학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한국어 교사, 다문화 가정 상담사, 독서논술 지도사, 커피 바리스타, 동화구연 지도사, 영어동화 구연 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자원봉사 상담가 심화과정, 중급 수화 및 고급 수화 과정도 수료했다.

저는 평생을 봉사와 함께 살아왔어요. 구의3동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자원봉사 캠프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였으며 2018년 12월 18일에는 자원봉사활동 6,000시간 이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어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상', '광진구청 환경·자원봉사부문 구민 대상'까지 수상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건국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베스트 친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한 헌혈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혈장헌혈까지 하였습니다. 일석이조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1촌 맺기, 매트로 1촌 맺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행사에서 수화를 할 때면 연단 앞으로 뛰어나가 수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구의3동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자랑거리로 산, 강, 청정지역 등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구의3동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주민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연령층도 다른 지역보다 젊은 것 같아요. 또한, 도와줄 곳이 별로 없으며 대상자 발굴이 힘들 정도입니다. 봉사활동 대상자를 찾기도 힘들어요.



주민자치회 활동과 바라는 점

저는 주민자치회 문화체육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분과의 대표 활동은 아차산 탐방, 체육대회, 배드민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차산 탐방에서는 김민수 해설사와 맺은 인연을 끝까지 유지하며 가고 싶어요. 배드민턴은 구의3동의 특화된 운동으로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헌혈 릴레이에 관심을 갖고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실행 중에 있어요. 회장님이 1번으로 시작하여 릴레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현재 암 환자로서 주민자치회에 절실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암 판정을 받고 집에 오니 막막하더라고요. 보험을 들긴 했지만 턱 없이 부족해서 크게 당황되었지요. 젊은 분들도 암 보험 꼭 챙기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암 예방교육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암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사전 교육을 해주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착한 사람에게 걸리는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을 통하여 각인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라는 것은 관할 지역의 통장들도 다 알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한다. 인터뷰 중에 암 환자임을 밝혀도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하셨다. 세상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늘 만인에게 미소를 주는 오세순 님의 빠른 쾌유를 빈다. 그리고 인터뷰 하는 오늘 따라 사무실 밖 공사중 소음이 심하다. 기계톱의 요란스런 소음 속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오세순 님께 감사드린다.

배드민턴은 내 삶의 동반자

구의3동 주민자치회 유현미 위원

일시 | 2020. 11.10.(화) 10: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유현미 위원

"구삼축제에 배드민턴 대회는 꼭 치루고 싶어"

초겨울의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자치회실로 들어오는 유현미 위원님은 건강함 그 자체였다. 문화체육분과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유현미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원에서 스포츠 용품 대표로

유현미 위원님은 국민대학교 연구실에서 회계 관련 일을 20여년 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내 일을 하려고 퇴직을 했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서 2013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하였는데 인연이 되어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 구의3동 자치회 위원이 되었고 문화체육 분과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현재는 구의3동에서 배드민턴 숍을 하고 있고요. 광진구 여러 개 클럽을 다니면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많은 동호인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숍을 하기 전에는 국민대학교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한 20년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제 일을 하자는 생각을 했지요. 퇴사를 하고 퇴직금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카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 숍 자리를 처음에는 카페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배드민턴 숍으로 바꾸었지요. 숍을 하면서 마진이 없더라도 월세만 내더라도 즐겁게 일 하자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배드민턴은 내 삶의 동반자로서 진행 중

위원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취미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켓을 가지고 공을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용품을 구입하고 대회를 나가고 클럽 총무를 하게 되면서 배드민턴은 유현미 위원의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배드민턴을 치려고 라켓 하나 들고 구의초등학교를 갔어요. 가서 치려고 하는데 신발은 실내화를 신어야 된대요. 그래서 신발을 사러 갔지요. 신발을 샀더니 가방도 필요하대요. 가방을 샀더니 클럽에 가입 하래요. 클럽에 가입 했더니 대회를 나가야 된대요. 대회를 나갔지요. 대회를 나가니 총무를 맡아 달래요. 그렇게 배드민턴이 시작되고 숍까지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 여러 개의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배드민턴 숍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유현미 위원은 배드민턴 용품과 관련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을 받기고 했지만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의 품질이 좋기도 하여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맨십 정신과 국산품을 애용하는 정신과의 연관성이 분명 있을 것 같다. 숍을 운영하면서 클럽에 가입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동호인들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일본 제품 보이콧해서 일본 제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동호인들에게 요넥스 제품이 동호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테크니스트, 리더아머, 피썸 등 여러 가지 국내 브랜드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요넥스는 동호인들이 일본 제품이라는 이유로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클럽에 들어 가면은 여러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와. 숍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네.' 그러면서 엄청 반겨주세요. 클럽 회원들의 라켓 줄 고칠 때나 물건 필요할 때 직접 가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야 하는데 제가 있으니 편하게 주문하고 운동하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하나는 숍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일단 안 좋게 봐요. 장사하려고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들어가서 같이 부대끼면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분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클럽에 들어가서 총무를 맡잖아요. 그러면 숍 하는 사람이 맡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회원이니까 더 싸게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코로나19 방역 아르바이트에서 봉사로 이어짐

코로나19의 여파는 유현미 위원의 가게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게 경영이 어려워져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대표의 권유로 방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보육원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 분의 권유로 지난 여름부터 봉사의 길도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하신다.

건물 전체를 하기 때문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세 시간 정도 걸려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9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나올 때도 있었고. 주말 같은 때는 큰 회사는 다 쉬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제일 바빴어요.

이 사회적기업 대표님이 보육원 같은 데도 봉사를 엄청 많이 하세요. 저도 이 분 따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하남에 '소망의 집'이라고 장애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잘 씹지 못해서 아주 잘게 썰어서 음식을 만들고 먹여도 줘야 하거든요. 삼계탕 같은 것도 푹 끓여서 뼈를 바르고 잘게 찢어서 먹이고 그래요. 저도 그걸 보니까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판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 다 한 삼십 벌 정도 기증했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기능성 운동복이라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상한 것이 그분들 준다고 하면은 그 옷의 가격이 생각 안나요. 진짜 신기해요.

구삼축제와 배드민턴 대회

위원님은 가게를 운영하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자치회 회장님의 권유로 자치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숍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쳐서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치회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된 미안함이 크다고 하셨다.

제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줄 알고 총무를 맡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로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 보니까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장님이나 분과위원들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분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너무 바빠서 도움을 드리지 못 해서 민폐가 되니 총무자리는 놓고 뒤에서 돕겠다고 했더니 분과장님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총무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죄송하지요.

20년 문화체육 분과 가장 큰 사업은 온라인 구삼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올해 진행하지 못한 여러 사업을 21년에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민들을 위해 배드민턴 강좌와 대회는 꼭 치르려고 해요. 그때는 제가 주축이 돼서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진행에 필요한 강사를 구하는 일, 행사나 대회를 할 때 상품을 찬조할 마음도 있고요. 구의3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의3동 주민을 위한 봉사라 생각한다는 유현미 위원님. 자치회 일을 많이 못해 미안하다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다. 구의3동 주민을 위한 봉사는 조금 적었더라도 어린이대공원의 배드민턴 코트와 주변을 방역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봉사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유현미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기대해 본다.

천둥벌거숭이도 품격으로 맞이해주는 구의3동 주민들

구의3동 주민자치회 김재형 위원

일시 | 2020. 10.20.(화) 14:00
장소 | 광진문화원 5층 회의실

김재형 위원

"청년이 자치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 필요"

청명한 가을 한강 가까이 있는 광진문화원에서 젊은 자치위원인 김재형 위원을 만났다.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건강한 청년의 일과 자치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따뜻한 365입니다

청년 위원의 소개는 남다르다. 하루가 모여 일년이 되고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체온을 뜻하는 '365' 숫자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본인을 소개한다.

저는 365라는 숫자로 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365라는 숫자는 일상 속에서 일 년 삼백육십오일 그리고 평균 체온 36.5도라는 흔하지만 일상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루에 세 번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여섯 번 이상 웃고 다섯 번 이상 상대방을 웃게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광진구 청년 김재형 입니다.

광진문화원 문화예술과 재직 중인 젊은 위원

광진문화원에 공채로 입사한 지 3년이 된 김재형 위원은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때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여러 학내 단체장을 역임했다. 학내·외 행사 경력과 사업 기획 경험을 문화원에서 높이 인정하여 입사하게 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광진문화원 예술과에서는 문화 강좌 운영, 관내 문화 행사 및 공모사업 프로그램 진행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도 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공모 사업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란 것도 있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연설대전, 그리고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전통성년회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문화원이 다른 공모 사업도 되게 많은데요. 문화원은 남녀노소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지 성격이 커요.

김재형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진행 중이라 한다. 영상 제작, 라이브 송출과 최소한의 대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전문 인력 강사를 양성해서 수요처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전통 성년회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대면사업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20년에는 감사했다고 한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연령대가 어르신들이라 보니까 쉽게 접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강사님들이 체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이나 상태에 맞춰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타와 댄스를 접목시킨 프로그램,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관현악단 '뮤라클 관현악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식이다 보니까 스무 살이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같이 체험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외국인도 함께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어디서 섭외할 수 없으니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들과 행사를 같이 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구의3동 주민들

구의3동에 대한 자랑을 부탁했더니 ‘사람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을 대할 때 모두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 주셔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구의3동 자랑거리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재직 중인 문화원과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구의3동 주민분들과 활동가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우물 안 개구리, 소위 말하는 천둥벌거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저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분들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바뀌는 순간 격려해주신 그 분들이 저의 목표이자 자부심이 되었고요. 저도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자부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원이나 자치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제가 문화원 업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어르신들에게 설명해 드리거나 조언을 구할 때 어르신들의 생각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또 나이가 어려도 무시를 하지 않으시고, 저의 조금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 약간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저의 실례를 격려로 답해주셨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 존중 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 분과에서 활약 중인 김재형 위원

광진문화원에서 일하는 장점을 살려 문화체육 분과에서 활동을 하는 김재형 위원은 구삼축제를 준비 중이다. 구삼축제 준비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문화체육 분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많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구삼축제도 자기자랑을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신청서와 자기자랑 영상을 보내주시면 1차 심사를 통해 11월 20일 본선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자랑으로 초점을 맞췄고요.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장기자랑이다 보니까 노래 자랑 신청이 제일 많고요. 청년이나 학교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 중고등학교 댄스팀도 지원했고요. 문화원에 속해 있는 하모니카 동아리, 난타 동아리 등이 신청을 많이 했답니다.

문화체육 분과에서는 구삼축제 외에도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미뤄졌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스트래칭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되었다며 설명을 이어 나갔다.

주민자치회 문화체육 분과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주민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강사가 문화원에 마침 계셔서 지금 요청을 해서 사업이 승인된 상태에요. 구의3동 주민을 대상으로 장소는 주민센터랑 문화원에 요가나 스트레칭 하는 강의실이 있어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회의 중입니다.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받아서 3일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려면 젊은 층 유입이 관건

젊은 층이 마을과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가장 급한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주민자치회는 마을 이곳저곳을 알고 마을에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혜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테니까 많이들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에는 패기가 있고 열정 가득한 청년층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자신감을 가진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이야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왔으면 합니다.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4포 세대이고, 취업 시장까지 많이 축소돼서 과연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야 삶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바쁘다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청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마을 단위이긴 하지만 마을에서 청년 관련 계획을 세워 청년이 힘을 얻고 나면 구 단위 더 나아가 시 정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우리 구의3동 주민자치회부터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 분과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듯이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줌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문화원은 3개월 단위로 한 학기가 운영되고 프로그램은 340여 가지가 있고 수강생은 3500~3800여 명 된다고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비단 광진문화원 만의 상황이 아니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재형 위원과 수강생들, 그리고 모든 문화원 관계자 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젊은 위원의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구의3동 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것임을 알았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재형 위원에게 감사드린다.



구의3동 개나리 공원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집배원

광진우체국 김덕영 집배원

일시 | 2020. 09. 25.(금) 10:00
장소 | 광진우체국 B동 집배원 사무실

김덕영 집배원

"기쁨과 슬픔을 전하는 자부심 느껴"

구의3동에 위치한 광진우체국 김덕영 집배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광진우체국을 찾았다. 광진우체국 정문에 들어와서 다시 B동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찾아가는 길 중간 중간에 우편물과 택배 분류 작업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척 바쁜 와중에 동료의 배려 속에서 인터뷰 시간을 마련해준 김덕영 집배원님께 감사드린다.

자기소개

김덕영 집배원은 중·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좋아했고 문학에 관심에 많아서 대학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50세가 넘어 월간문학을 통하여 등단했고 올해가 등단 6년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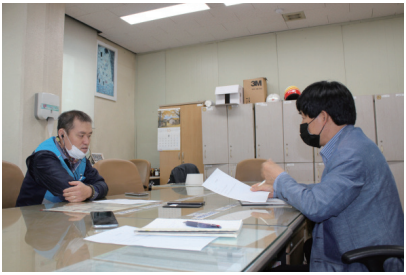


저는 광진구 중곡동에 살고 있으며 구의3동에 위치한 광진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입니다. 직장에 다닌 지는 20년 되었어요. 집배원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일대 다(多)의 만남이며 기쁜 또는 슬픈 사람들에게 소식이나 물건을 전해주는 일이라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집배원 생활을 하면서도 틈을 내어 글을 쓰고 시를 써서 문학지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3동 주변에 먹거리도 많고 한강, 대공원, 아차산 등은 물론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등이 있어 광진구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동에 '미가로 맛의 거리'가 있어 먹거리가 풍부하고 더욱 살맛 나는 동네입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슬프거나 감동적인 일

4~5년 전에 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지역(구의동)과 받는 사람 이름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번지수가 없었어요. 구의동에서 오랫동안 배달한 경험이 있어 구의동에 사시는 독거 할머니에게 온 것으로 감지하고 할머니께 확인하여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외국에 사는 자식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어요. 저도 보람이 있었죠. 반면에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환장이나 부동산 관련 딱지 같은 것을 전달할 때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안 좋습니다.



우편 집배원으로 힘든 점

예전에는 우체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소포 배달도 많다보니 무조건 택배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편물 배달 왔다고 하면 문 앞에 놔두고 가라고 해요. 등기우편이라고 하면 '문 앞에 놓으라면 놓고 가지 왜 따지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배달된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소 보고 문 앞에 놔두고 왔는데 이사 갔다며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경비실도 물건 주인이 부탁한 것만 맡아주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체국 집배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

저는 우체부잖아요. 지금은 우체부에서 집배원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배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구의동 전체에 20명의 집배원이 활동하며 구의3동에는 2~3명의 집배원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조건 택배기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수고했다. 고생한다.'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산악회에도 못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납니다. 지역에서도 단체 및 자치 활동도 중단되었잖아요. 빨리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은 새벽부터 무척 숨 가쁘게 돌아가요. 우리는 업무 성격상 아침 7시에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충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영 집배원님이 사전에 시간을 정하고 서로 약속하여 이루어진 인터뷰라서 약간의 여유 속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질 못했다. 집배원의 업무가 한 치의 여유나 쉴 시간도 없이 이루어지는 바쁜 업무였음을 알았다. 인터뷰로 인하여 동료 집배원님들 업무에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미안함을 전한다.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

광진학교 장택수 팀장

일시 | 2020. 10. 20.(금) 10:00
장소 | 구의3동 주민자치회실

장택수 팀장

"장애아에 대한 애정으로 12년간 광진학교 근무"

오늘은 광진구에 유일한 특수학교인 구의3동에 위치한 서울광진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장택수 시설관리팀장님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곧바로 도착하신 장택수 팀장님의 외모는 오늘의 맑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단정하였다. 구의3동 주민센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남다른 친근감이 느껴진다. 서울광진학교의 특성상 매우 바쁜 시간인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택수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구의3동에 위치한 서울광진학교 시설관리팀장 장택수 입니다

장택수 팀장의 자녀도 지적장애 1급 장애아로서 서울광진학교를 졸업하였고 지금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자녀 돌봄으로 현재 서울광진학교에 세 번째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서울광진학교에서 일반직으로 학교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맡고 장택수 팀장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은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아이보다 더 장애를 가졌다는 말처럼 솔직히 늘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울광진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과 더불어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민원이 발생하면 저는 교직원이면서 학부모인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광진학교에 세 번째 근무하는 것은 물론 제가 자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관심과 배려'라는 생활지표를 갖고 장애아의 학부모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진학교 소개와 감동적인 일

서울광진학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학생,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기르고자 한다. 2020학년도에는 25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33명의 재학생과 98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광진학교는 1999년 설립되었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설립에 대한 반대가 심했죠. 초·중·고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립회관과 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서울광진학교에 다닐 때 저도 이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때는 학생들의 인형극을 위해 밤 11시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고 학생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연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춘천인형극제에서 '무지개 물고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참여한 인형극제에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감동이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구의3동의 자랑거리와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서울광진학교에 세 번째 발령을 받아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의3동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선호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동은 강변도시로서 광진구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서울광진학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 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화분이나 꽃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 돌봄에 늘 지쳐있는 학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나들이 등을 통한 학부모 케어를 해주면 좋겠고, 아이와 함께 학부모의 휴식을 위한 쉼터 등을 설치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가 많아 단시간 일자리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한 말씀

장애아를 둔 부모는 '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저는 아이를 위해 특수교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이를 위해 퇴근 후에도 자기생활은 거의 못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더욱 어렵습니다. 등교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너무 너무 지겹습니다. 장애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십시오.





동서울터미널



<구의3동 마을자치이야기>는
동단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서 기획하고
50+마을기록지원단 **임영호, 장숙영** 선생님의 인터뷰와 기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숙영, 임영호 선생님이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구의3동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동네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기획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동마을자치이야기 기획단
글쓴이 | 임영호, 장숙영 (50+ 마을기록지원단)
디자인 | A32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전화 | 02. 6949. 6981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
「50+마을기록지원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